

미얀마 식품산업 현황과 TASK 사업을 통한 한-미얀마 상호협력 강화

Current status of Myanmar food industry and reinforcement of
Korea-Myanmar mutual cooperation through TASK project

홍석인^{1,*}
Seok-In Hong^{1,*}

¹한국식품연구원
¹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Abstract

Since the food industry, including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largest industrial sector i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develop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despite the limitations of investment,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level. Particularly, the Myanmar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 agricultural product-based food industr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is promoting various policy efforts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overall status of the food industry in Myanmar has been reviewed in this study. Also, the 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project in the food processing sector as an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has been specifically

addressed in order to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yanmar in the near future.

Keywords: Myanmar food industry, ODA, TASK project, technical solution, mutual cooperation

서론

미얀마 식품산업은 농산업과 식음료산업을 포함하여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산업분야로서 상업적 거래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핵심부문이다. 미얀마의 식품시장은 2018년도 기준 약 89.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8%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3년 약 111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미얀마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29,000 여개의 식음료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

*Corresponding author: Seok-In Hong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245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Tel: +82-63-219-9053
Fax: +82-63-219-9876
E-mail: sihong@kfri.re.kr
Received July 20, 2022; revised August 29, 2022; accepted August 29, 2022

정되나, 약 14%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영세기업인 식품제조업은 아직까지 발전단계가 낮고 여전히 고품질 가공식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landers Investment & Trade, 2020). 주요 가공식품으로는 설탕, 맥주, 청량음료, 즉석면류, 제과/제빵, 커피와 차, 전통적인 편이식품 등이 있다. 또한 미얀마는 초과 생산되는 쌀과 냉동 수산물을 일부 수출하고 있으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식료품은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자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식품과 건강을 제공하고, 관광산업 부흥 및 수출 촉진,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미얀마는 소비재 생산기업에게 많은 기회요인을 줄 수 있는 '미래시장' 20개 가운데 하나로서,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얀마의 가공식품 소매 시장규모는 2018년도 기준으로 약 16.6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12년 약 8.1억 달러 이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USA, 2020). 향후에도 이 분야의 시장전망은 고무적으로 2023년에는 가공식품 시장규모가 약 3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미얀마 식품산업의 SWOT 분석(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측면에서,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 저비용 노동인력과 관광명소가 많아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시장을 목표로 식품가공분야의 급격한 팽창이 예상된다. 특히 상당 규모의 젊은 인구가 구매력이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 시장에서 현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타의 신흥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가처분 소득이 낮고, 높은 문맹률과 낮은 기술 숙련도, 물류 및 재정 인프라 부족, 불안정한 전력공급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얀마 정부와 산업계는 비록 투자와 생산, 기술수준의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기반의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KOTRA, 2021).

한국 식품(K-food)의 미얀마 수출이나 현지 진출 현황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으나, 미얀마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 다국적 프랜차이즈 및 도소매 거래 허용, 규제

완화 노력과 소비 구매력 증대에 따라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롯데가 2013년 진출한 이래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근래에는 농심의 현지화 전략으로 신라면이 미얀마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산 식품으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 식품의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24.6%), 커피크리머(21.4%), 기타 조제품(16.3%), 소스류, 비스킷류, 기타 음료, 김, 참깨, 파이/케이크, 홍삼조제품 등으로 상위 3개 항목이 10개 품목 총 수출액(2018년도 기준, 858만 달러)의 62.3%의 비중을 차지한다(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본고에서는 미얀마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식품가공산업 분야의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사업 수행을 통해 한-미얀마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미얀마 일반 현황

(1) 국가 개황

미얀마는 연방공화국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나,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표 1).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유지하나, 군에 연방과 국민의 통합 및 헌법 보호 책임을 부여하여 군 총사령관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개헌 저지선인 연방 상원의원 25% 및 하원의원 25%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3개 부처 장관(국방·내무·국경장관) 지명권도 보유한다. 행정구역상 전국을 14개 주로 나누고, 버마족이 거주하는 양곤, 만달레이, 사가잉 등 7개 주(Region)와 非버마족이 거주하는 산, 까친, 라카인 등 7개 주(State)로 구분한다.

미얀마는 전체의 약 68%가 버마족이고, 그 외 산, 까친, 꺼인, 몬, 친, 라카인 등 135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간 평화와 화합이 필수적이다. 고대 미얀마는 인도 및 중국 문화권과 접촉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종교·문학·건축·공예·연극 등 문화 제반분야에서 인도로부터의 영향이 큰 편으로, 특히 불교문화 영

표 1. 미얀마 국가 개황

[출처: 외교부(2019), 미얀마 개황; Wikipedia(2022)]

구분	내용
국명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면적	676,577 km ² (한반도의 약 3배)
수도	네피도(Nay Pyi Taw) *2006년 양곤에서 네피도로 수도 이전
인구	약 5,469만 명(2020년 기준)
민족(인종)	버마(68%), 샨, 까친, 께인, 몬, 친, 라카인 등 135개 민족 *미얀마 정부 공식 발표 기준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기타 소수어
종교	불교(88%), 기독교(6%), 이슬람교(4%), 토속 신앙(1%), 힌두교(0.5%) 등
기후	열대성 몬순 기후로 우기(5~10월)와 건기 구분 뚜렷함 - 연평균 기온 27.4°C, 연평균 강우량 2,513 mm
국가 원수	민 쉐(Myint Swe) *2021년 쿠데타 발생: 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향이 지대하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 분포 상 불교가 압도적(88%)이며 기독교(6%), 이슬람교(4%) 등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인 불교도와 여타 소수 종교도 간 갈등이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등 종교적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2008년 헌법에서 미얀마어를 공식어로 지정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라카인·샨·까친 등)에서는 해당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도 사용한다.

(2) 경제 개황

미얀마는 2011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추진으로 매년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표 2), 향후에도 가스 등 천연자원 생산증가, 교통 및 통신 분야의 투자확대, 외국인 투자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 전망된다(KOTRA, 2021). 다만, 라카인 이슈(로힝야 난민 문제)와 최근 군부 쿠데타로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면서 미국 및 유럽 기업의 직접투자가 감소하여 미얀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카인 이슈 및 쿠데타 해결 여부가 향후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표 2. 미얀마 경제 개황

[출처: IMF(2019); World Bank(2019), World bank indicator]

구분(항목/년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억 달러	632.25	604.52	613.86	685.59	760.90
1인당 GDP(명목)	달러	1,219	1,157	1,166	1,298	1,242
경제성장률	%	7.5	5.2	6.3	6.7	6.5
소비자물가 상승률	%	7.3	9.1	4.6	5.9	8.6
실업률	%	4.0	4.0	4.0	4.0	4.0
정부부채	GDP%	33.3	38.1	35.6	-	-
총 교역액	억 달러	371.30	276.46	334.48	365.16	253.92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4	66	57	17	41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 미얀마 짜트(kyat)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대규모 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격인상 등으로 2016년 소비자 물가는 9% 이상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물가상승은 약 5~6%대로 안정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수준 및 낙후된 조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한 반면, 전력·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미얀마의 무역규모는 개방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대폭 증가하다, 2015년 홍수, 2020~2021년 COVID-19 등의 재해 상황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 중이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산업용 기계 등 자본재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소비재 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표 3). 교역품목으로는 주로 천연자원(천연가스, 옥),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의류 등을 수출하고, 기계·운송기기, 정제 광유, 기초금속 등 산업인프라 구축 및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표 3. 무역 수지

[출처: IMF(2019); World Bank(2019), World bank indicator]

구분(항목/년도)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18/17, %)
수출(백만US\$)	12,606	11,725	13,930	15,377	10.39
수입(백만US\$)	24,524	15,921	19,518	21,139	8.31
교역수지(백만US\$)	-11,918	-4,196	-5,588	-5,762	3.11

표 4. 주요 교역국가 및 연도별 수출액

[출처: World Bank(2019), World bank indicator; 미얀마 중앙통계청(2020)]

순위	국가	연도별 수출액(백만US\$)			비중(%)			증감률 (19/18, %)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	중국	5,749.0	6,086.5	6,329.6	33.4	32.6	39.6	4.0
2	싱가포르	2,494.3	3,084.6	3,161.2	14.5	16.5	19.8	2.5
3	태국	2,086.2	2,228.6	2,183.2	12.1	11.9	13.6	-2.0
4	말레이시아	821.3	867.2	806.0	4.8	4.6	5.0	-7.1
5	인도네시아	702.1	901.4	905.5	4.1	4.8	5.7	0.5
6	인도	999.6	860.9	760.9	5.8	4.6	4.8	-11.6
7	일본	1,247.5	966.6	480.6	7.2	5.2	3.0	-50.3
8	한국	523.6	495.2	453.4	3.0	2.6	2.8	-8.4
9	미국	498.5	431.6	327.6	2.9	2.3	2.0	-24.1
10	프랑스	126.8	185.7	247.7	0.7	1.0	1.5	33.4
-	기타	1,683.3	2,177.1	347.2	9.8	11.7	2.2	-84.1
	계	17,211.1	18,687.0	16,002.9	100	100	100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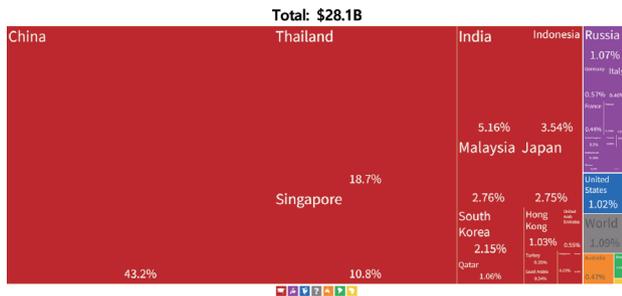


그림 1. 주요 수입국 현황(2018년 기준)
[출처: OEC(2022),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며,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교역 중이다(표 4, 그림 1). 수출품의 95%를 차지하는 농수산물과 광물 제품에 대해 중국이 2014년 면세혜택을 주면서 대 중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6/2017년 전체 수출액의 37%인 100억 달러를, 2017/2018년 35%인 111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규모가 2016/2017년에 전년대비 251% 급증한 바, 이는 2016년 10월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및 동년 11월 일반특혜관세 제도(GSP) 혜택 재개에 따른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얀마의 대 한국 무역규모는 2017/2018년도 기준 7.98억 달러(미얀마 상무부 기준)/10.71억 달러(한국무역협회 기준)로, 한국은 미얀마의 제8대 교역

대상국이다. 미얀마 상무부와 한국무역협회 간의 통계는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바, 이는 미얀마측 기업들이 축소 신고하는 관행에 따른 차이로 파악된다. 미얀마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의 산업기계, 직물, 수송기계, 플라스틱, 석유화학, 건축 기자재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기업의 봉제 투자 증가로 미얀마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농수산물은 콩, 냉동어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KOTRA, 2021).

2. 미얀마 산업 동향

(1) 산업 전반의 동향

과거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기후로 3모작이 가능한 환경으로 농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2011년 대외개방 이후 유통, 교통, 관광 등 서비스업 발전으로 인해 3차 산업이 1차 산업 규모를 추월하였으며, 2012년부터 제조업·광업 또한 1차 산업 규모를 추월하여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KOTRA, 2021). 최근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GDP 대비(2018년 3월 기준) 농림축수산업 비중 24.8%, 에너지·광물·제조업 비중 35.4%, 3차 산업(서비스업) 비중 39.9%로 구성된다. 농업의 경우 노동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광대한 토지와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으나, 군부정권 하의 폐쇄적 경제정책에 따른 관개·저장시설 부족 등 농업기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이다. 아울러 제조업은 섬유·봉제업 및 농수산물 단순가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숙련된 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아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가 당면 과제이다.

(2) 핵심 산업 현황

미얀마의 농업(축산·수산·임업 포함)은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노동인구의 7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에 해당한다(미얀마 중앙통계청, 2020). 다양한 기후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60개 이상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나, 낙후된 농기계·생산기술로 인해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주로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너트, 양파, 미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쌀은 중국, 인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에 해당한다. 축산업은 주로 물소, 돼지, 소, 염소 등을 사육하고 있으나, 사육기술이 낙후되어 있다. 수산물은 주요 수출품(6위, 수출액의 3.7%)이자 7대 육성품목 중 하나로 생산·가공 특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정부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한편 미얀마 국토의 42.9%가 삼림지대이며, 세계 1위 티크나무 보유국(전 세계의 75%)으로 정부에서 원목 수출을 통제한다.

제조업은 GDP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봉제업, 농수산물 가공 등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봉제업 등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품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는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개발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도로·항만 등 기본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여 전력 보급률 30%대,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 비율이 44%에 불과하고, 투자·물류환경 등도 열악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는 진출기업의 원자재·제품 수급 애로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복잡한 지질구조로 다양한 에너지·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우라늄이 포함된 페그마타이트(pegmatit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중요 광물과 루비, 옥 등 귀금속 매장량도 풍부한 편이다. 자체 기술력과 자본 부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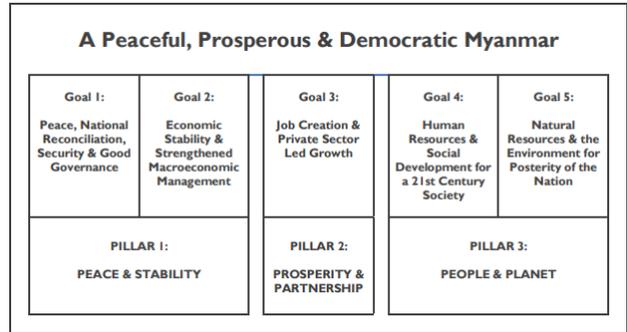


그림 2.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 구성 체계(MSDP Summary Framework)
[출처: 미얀마 기획재정부(2018),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8~2030)]

로 글로벌 대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자원을 탐사·개발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제1위 수출품목에 해당한다.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미얀마 상무부가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영위를 허용함에 따라 해외기업의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2개 외국 및 합작법인에 대해 도소매업을 허가하였고(2019년 9월), 그동안 금지된 외국계 은행의 금융서비스와 보험업도 허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금융·보험 시장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 산업정책

미얀마 정부는 2016년 7월에 민족화합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개략적으로 국민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농업 개발을 포함한 산업화, 환경보존을 기본으로 도시개발, e-government를 통한 부정부패 없는 개방된 정부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12개의 주요 경제정책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환경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개선, 인적자원개발 등 기업환경 개선, 국영기업 민영화, 안정적인 국고 및 조세관리 등 정부 혁신계획을 포함한다(KOTRA, 2021).

이후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국가발전 청사진인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8~2030)을 발표하였다(그림 2). 이는 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사람과 지구를 3대 중심축으로 5대 목표, 28개 전략, 251개 세부 이

행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별 개략적 실행계획(Action Plan)도 발표된 바 있다.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수출 주도를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1차 국가수출전략(NES: National Export Strategy 2015~2019)을 갱신한 'NES 2020~2025'를 수립하였다. 이에 수출 주도산업으로서 농식품 가공업, 임업, 섬유·봉제업, 수산업, 관광업, 고무, 쌀, 과일·채소, 보석, 수공예품, 가공식품, 디지털 사업 등을 지정하였다.

(4) 식품산업 현황 및 주요 정책

미얀마 식품시장 규모는 2013년, 114,931억 짜트(kyat)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358,873억 짜트로 약 212.3%의 성장률과 연평균 17.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식품 판매액과 판매량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8년도 기준으로 판매액 16.6억 달러, 판매량 82.2만 톤을 기록하였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주변국에 비해 규모가 큰 미얀마의 젊은 소비층이 식음료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미얀마 식품시장은 연평균 2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년까지 111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주요 식품정책으로는 2018년 자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 도·소매 유통업체들의 100%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수출전략(NES 2020~2025)에서 수출 주도 사업부문에 농식품 가공업, 수산업, 쌀, 과일·채소, 가공식품 등을 포함하여 지정하였다. 대외교역 확대 측면에서 상무부는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우수관리인증(GAP)을 부여하여 상품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식품안전 강화를 위하여 식품 사업자의 위생·안전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검사와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3. 미얀마 식품가공산업 분야 TASK 사업

(1) 사업추진 배경

식품산업은 자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이면서 농산업뿐만 아니라, 포장·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얀마는 농식품 가공, 과일·채소,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련 산업계의 개발 의지는 높으나, 자국 생산품의 품질과 점유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소비재 가공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투자·생산 및 기술 보유 현황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미얀마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여건이 고려된 단기적이며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기술 확보, 투자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2011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으로 매년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1인당 GDP(2018년 기준 1,298달러)가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생겨나는 1천 달러를 상회해 중산층이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KOTRA, 2021).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식문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이로 인해 미얀마 식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특히, 현대적인 식품 유통채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이 높다는 인식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소매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COVID-19 확산 영향으로 2019년 6.7%에서 2020년 1.8%로 하락하였으나, 총 교역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KOTRA, 2021). 세부적으로 수출 1위 품목인 봉제의류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교역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이 불안정하고, COVID-19 사태로 인해 식량자원이 무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가공에 의한 고부가가치 식품의 수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는 쌀, 콩, 과일·채소, 수산물 등 원료 농수산물의 생산이 풍부한데 비해,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산업의 GDP 비중은 2018년도 기준 10.17%로서 과거 대비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주로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너트, 양파, 마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쌀이 제1의 수출품목이다. 한편, 주요 가공식

품 판매 품목은 유제품, 베이커리, 소스, 면류, 과자류 등으로 자국의 식품가공기술이 인근 국가에 비해 낮아서 대부분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고급 식재료 제품은 일본, 한국, 유럽 등에서 수입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행히 자국내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의 확대, 정부의 수출 지향적 정책 등에 힘입어 풍부한 농수산물 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식품가공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예로서 식품산업협회의 활성화,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의 미얀마 현지 농산물 가공생산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외국 투자기업과 구분되는 자국내 식품기업의 성장을 위해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기술 확보,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얀마의 수요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미얀마 중소 농식품 가공, 식품제조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소개 및 기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식품산업의 특성상 전문 인력 및 관련 기술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공설비, 포장, 미생물, 첨가물, 냉동·냉장산업 등 식품가공을 위한 연관 산업의 미비로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가공산업은 정미(도정), 과채가공, 커피·차, 캐슈너트 가공, 수산물 가공 등 미얀마에서 다량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1차 가공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생산을 위한 단순가공 설비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영세한 자국 식품산업 기반으로 인해, 전반적인 식품가공에 대해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체계적인 기술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식품가공 및 제조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

TASK 사업은 수원국인 미얀마 현지 식품가공분야 업체의 생산제품 품질 개선 및 가공기술 역량 향상과 공여국인 한국 식품기업의 선진 식품가공 기술지도 및 협력을 통한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다(표 5). 세부적인 내

용으로 1차년도에 선정된 현지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공 기술, 위생, 품질 개선, 패키지 개선, 가공공정 및 설비 관련 자문,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기술지도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미얀마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출시장 및 원료/반제품, 완제품 수입처로서 미얀마의 역량 파악을 지원하며, 미얀마 기업의 기술지도 및 현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내 상품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TASK 사업 추진전략으로서 미얀마 현지 식품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지도 적합성 및 현지 판로개척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미얀마 정부 전담기관(상무부 산하 Myanmar Trade: Myanmar Trade Promotion Organization)의 추천을 받아 경제 중심인 양곤, 제2 도시인 만달레이 지역 등의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지도는 사업수행기관과 전문가 그룹의 현지 방문을 통하여 현지 식품업체의 역량을 정밀 진단하고, 공정 효율화, 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종합적인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추진 내용

TASK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술지원 대상 후보기업 선정, 역량진단, 종합 진단보고서 작성, 맞춤형 기술지도 지원 계획 수립, 기술지도 실시,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상기업 선정 절차로서 수원국인 미얀마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기업들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한다(표 6, 7). 서류심사에 의한 기업 애로사항 및 가공기술, 품질 문제 등 현황을 파악하고, 후보기업의 애로사항 및 문제 해결시 예상되는 기술지도 성과 점검을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이때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 업종 및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업체의 요청 기술, 유통 및 마케팅 현황, 재무구조, 경영진 및 기술인력 현황, 해당 산업의 발전성, 내수 및 수출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한다. 아울러 지원 기술의 국내 보유 여부, 국내 산업과의 제휴 및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미얀마 전담기관의 추천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절한 기업군을 발굴

표 5. TASK 사업 일람표(PDM: Project Design Matrix)

사업요약	검증지표	지표 측정수단	고려사항
상위목표(Goal) (미얀마) 식품제조기업 가공기술 역량 향상 (한국) 국내 식품기업 선진 식품가공 기술지도 및 협력을 통한 미얀마 시장 진출	·수혜기업 제품의 품질 개선 및 가공기술 향상 건수 ·품질개선 및 기술지도 받은 제품들의 매출 증가액 ·국내기업 수출상담 실적(2년차: 5건, 3년차: 10건)	·수혜기업 제품의 품질 개선 실적 정량적 효과(제품의 종합적 기호도 평가 등) ·관련기업의 수출 상담일지 등 증빙자료	·품질개선 정량지표의 적절성(기호도 평가 점수 등) ·수출 상담일지 증빙자료의 신뢰성
사업목적(Project Purpose) (미얀마) 수혜기업의 생산기술 증진으로 인한 제품품질 개선 및 가공기술 역량 향상 (한국)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 및 판로 개척	·수혜기업의 기술역량 증진에 따른 자체 만족도(90% 이상) ·수혜기업 제품품질 개선 및 가공기술 향상 건수 ·업무협약 체결 건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협약 체결 문서	·만족도 조사 방식,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
산출물(Outputs)			
1. 기술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2. 수혜기업 대상 기술지도 달성	1. 수혜기업 선정(10개 내외) 2.1. 기업별 종합 진단결과 및 애로사항에 따른 세부 지원계획(10건) 2.2. 기술지도 ·기술지도 실행 실적(40건) ·기술지도 성과(10건) ·기술지도 프로그램 이행률(100%) 3.1. HACCP 등 인증 지원 세미나 개최(1회)	·종합진단보고서(수혜기업 선정보고서 및 기술지도 지원계획서) ·최종보고서 ·기술지도 활동보고서 ·기술지도 성과보고서 ·세미나 개최 보고서 ·초청 연수 보고서	·진단결과의 신뢰성 및 기술지도 계획의 실현 가능성 ·COVID-19 확산 및 정치적 상황(2021년 2월 쿠데타 발생 이후 시위/진압)에 따른 이동 제한
3. 인증지원, 식품위생·기술세미나 개최 및 수혜기업 관계자 초청연수를 통한 국내 기업과의 네트워크 증대	3.2. 식품위생·기술 세미나 개최(2회) 3.3. 국내 초청연수 개최(사업기간 중 최대 2회)		
사업내용(Activities)	투입요소(Inputs)	전제조건(Preconditions)	
1. 기술지원 기업 선정 1.1. 기술지원 후보기업 모집 1.2. 후보기업 운영 현황/애로기술 확인을 위한 심층조사 실시 1.3. 기술지원 기업 확정 2. 기술지원 기업 애로요인 파악 2.1. 기업별 애로요인 및 성과창출 방안 파악 진단 후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도 계획서 작성 2.2. 종합진단보고서 작성 3. 대상기업 기술지도 3.1. 공정개선/품질개선 3.2. 제품 시험분석 3.3. HACCP 인증지원 3.4. 시제품 제조지원 3.5. 현장 위생교육 4. 국내 산업시찰 및 현지기업 대상 기술 세미나 개최 4.1. 정부기관 관계자 및 기술지도 대상기업 초청 국내 산업시찰 실시 4.2. 현지기업 수요 맞춤형 식품기술 세미나 개최 4.3. 기술지도 기업 대상 생산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현지 수혜기업에 적합한 전문가단 구성 및 매칭 ·현지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미얀마) ·수혜기업 선정을 위한 후보기업 추천 ·현지 수혜기업 기술지도 업무 협력 ·한국 전문가단의 현지 체류 중 안전 지원 ·현지 기업방문 등 한국 전문가단의 전 일정 동행 및 업무협조	·기술지원에 적합한 인력과 충분한 재원의 확보 여부 ·현지 수요기술, 역량, 성장 가능성,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후보기업 추천 ·대상기업의 전문가단 기업과의 연관성 및 적합성 ·행정처리의 신속성 및 업무지원의 적극성	

표 6. TASK 사업 지원 대상 후보기업 1차 선정 기준

평가항목	주요 평가기준
적절성	- 수원국 미얀마 정부를 통한 접수 여부(추천)
	- 정부간 협의된 식품가공분야 적합성
	- 기업유형(개도국 기준 분류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역 접근성	- 수원국 정부로부터 대상 업체간 이동 실소요 시간(차량)
	- 업체의 본사, 공장간 거리 및 주소 기입
기업 규모	- 지역의 위험성(미얀마 정부의 정보 확인)
	- 총 인력 수 및 조직도(경영진, 엔지니어, 생산 등)
	- 최근 3년간 매출액(내수/수출 포함)
관심도	- 기업 홈페이지 또는 브로슈어 유무 확인
	- 본사 및 생산현장 사진
의사 소통	- TASK 지원서 작성 성실도(애로사항 및 기술요청 분야)
	- 사전 메일 답장, 전화 등 신속한 회신 여부
	- 사용 언어(영어 가능 여부)

하여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술지도 성과의 정량·정성적 평가점수 순위별로 10개 내외의 미얀마 현지기업을 선정하고, 역량진단을 실시한다. 사전에 제품 품질개선, 제조 공정개선, 가공기술 개선, 제품 개발, 시제품 제조, 시험분석, 제품 판매, 수출판로 개척, 인증획득 지원 등이 포함된 평가항목으로 기술 애로요인을 수요기업별로 진단한다. 이후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 생산라인 점검 등을 통해 원료/포장재의 구매, 보관, 관리 현황, 생산설비 및 가공기술, 전기, 사용 에너지, 용수 및 기타 유틸리티 확인, 품질관리실, 품질관리 인력 및 관련 기자재 보유와 사용 여부, 생산제품의 종류와 생산량, 원가분석 및 수익률 분석, 가공과 품질에 관한 애로사항 현장 확인, 작업자의 교육 정도와 숙련 여부, 생산 및 품질관리 일지 확인, 인허가 및 인증 보유 현황, 기업 관계자의 적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종합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 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지도 방법, 기술지도 기간, 기술지도 전문가 구성안, 기술지도에 따른 효과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미얀마의 기술지도 대상기업 수요기술에 부합하는 맞춤형 국내 전문가 그룹을 연결한다. 이후 기술지도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기업별로 연 4

표 7. TASK 사업 지원 대상 후보기업 2차 선정 기준

지표명	지표 세부내용	배점	비고
시장성(30)	품질 경쟁력	10	심층조사
	가격 경쟁력	10	서류
	수출 가능성	10	서류
생산성(40)	생산설비 현황	10	심층조사
	기술수준	20	심층조사
전문성(30)	생산공정 관리 및 위생수준	10	심층조사
	기술인력	15	심층조사
	CEO 경영능력	15	심층조사

회 수준의 맞춤형 온라인/현장방문 기술지도를 실시하되 애로사항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선정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제공과 신제품 개발 전략 수립을 함께 지원한다. 실제 기술지도는 지원요청서 분석, 현장 애로요인 인터뷰, 현장 진단, 수혜기업과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국내외 동종기업의 역량 비교, 필요시 품질 및 품위 평가, 개선방안 제시, 기술지도 실시, 개선효과 및 성과 점검의 단계별로 진행한다.

성과점검 단계에서는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기업별로 기술지도 개선효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구체적으로 불량률 감소, 유통기간 연장, 생산성 향상, 공정 효율화 등의 기술지도 개선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측정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 또는 매칭기업의 미얀마 현지 진출 연계 여부도 모니터링 한다. 한편, 미얀마 전담기관(MyanmarTrade) 및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시찰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TASK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사업 종료시점에 실시한다.

(4) 사업 추진체계

식품가공산업 분야 TASK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도상국 대상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원국인 미얀마 정부 전담기관(MyanmarTrade) 과 수혜자인 식품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주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참여기관인 국제농산업개발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국내 매칭기업 전문가단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그림 3).

주관기관은 사업의 기획과 관리 총괄, 기술자문 및 시험분석, 평가, 수원국 기업체의 기술지도를 통한 개선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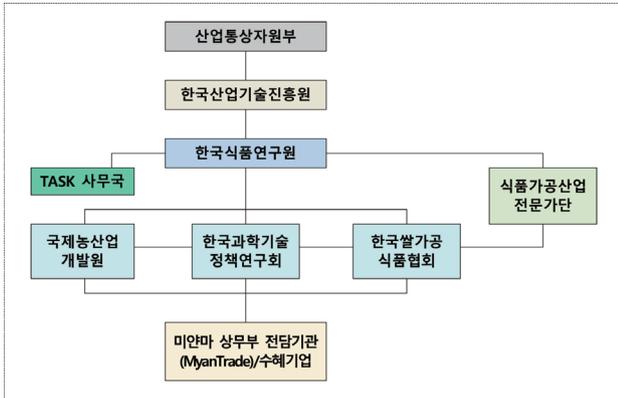


그림 3. TASK 사업 추진 체계도

과 검증, 식품가공산업 분야 전문가단 회원사 모집 및 국내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원 등을 담당하고, 참여기관은 전문가단의 현지 기술지원 활동 지원, 수원국 식품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연계를 통한 판로 지원 및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 지원, 수원국 현황 조사 및 현지 정부, 기관, 산업계 연계 추진, 식품관련 산업의 수원국을 포함한 주변국 시장조사 등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추진 계획과 활동 내역을 공유하며, 사업내용 조정 및 담당업무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5) 사업추진 기대효과

TASK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수혜기업의 제품 품질 개선, 가공기술 역량 향상,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수원국인 미얀마의 경제적 효과와 식품산업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수축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측면에서 쌀, 콩, 과일·채소, 커피·차, 축산물, 수산물 등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가공식품 원료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따른 현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술지원 수혜기업의 생산제품 품질 향상에 따른 경쟁 완제품의 수입 대체효과와 제품 다양화, 유통기간 연장, 위생 안전성 확보 등의 경쟁력 향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수출 증대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반적인 식품제조 가공기술 향상에 따른 원료 및 부자재 활용 효율성 증대로 손실비용 감소, 식품 안전성 향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유통기간 연장 및 물류 개선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수혜기업인 미얀마 식품가공 제조업체의 제품품질 개선 및 가공기술 역량 향상, 상품의 품질 향상, 포장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수혜기업의 생산기술 발전, 식품소재로서 원료 농산물의 선별, 1차 가공, 운송, 저장, 유통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전반적인 수확후 관리 기술 발전, 포장, 냉장, 냉동기술 등 가공식품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자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위생 및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불량식품 감소, 자국산 식재료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술 제공자인 국내 전문가와 매칭기업의 경우, 미얀마 식품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얀마 식품산업, 정부 정책 및 규제,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고품질, 저가원료 확보로 비용 감소 및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신시장 창출 및 수출 증진을 통해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식품산업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식품분야 시장규모 확대 및 지속성장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제고 및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적정 가공기술 지도 및 보급과 함께 국내 시장규모 확대가 제한적인 가공기기, 설비, 포장 및 유통설비 등 연계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한류, 한식 등 한국 고유 식문화 교류를 통한 산업계 전반의 국가 브랜드 및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요약

농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산업분야로서 미얀마 정부와 산업계는 비록 투자와 생산, 기술수준의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기반의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미얀마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식품가공산업 분야의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배경, 목표 및 전략, 주요 내용,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동시에, 사업 수행을 통해 식품산업 분야의 한-미얀마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Flanders Investment & Trade. Food & Beverage in Myanmar: Discover a sector with potential. (2020)
-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USA. Myanmar Country Profile. Available from: <https://www.foodexport.org/export-insights/market-and-country-profiles/myanmar-country-profile> (2020)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s://www.imf.org/en/Data> (2019)
-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KOTRA자료 21-067. Available from: <https://news.kotra.or.kr> (2021)
- OEC. Where does Burma import Animal Products, Vegetable Products, and Foodstuffs from? (2018). Available from: [visualize/tree_map/sitc/import/mmr/all/1.2.4/2018/](https://oec.world/en/visualize/tree_map/sitc/import/mmr/all/1.2.4/2018/) (2022)
- Wikipedia. Myanmar. Available from: <https://en.wikipedia.org/wiki/Myanmar> (2022)
- World Bank. World bank indicator. Available fr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2019)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SEAN 신흥국가 미얀마 식품시장 이슈 및 시사점. (2019)
- 미얀마 기획재정부(MOPF).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8~2030). Available from: <http://www.myanmarwaterportal.com> (2018)
-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Statistical Yearbook 2019. Available from: <https://www.csostat.gov.mm/PublicationAndRelease/StatisticalYearbook> (2020)
- 외교부. 미얀마 개황. Available from: <https://www.mofa.go.kr> (2019)